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하루하루가 평상심

사실 수원 수월들은 그 국제 무역선단에서 배가 끊은 뱃사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거기에서 필요했던 잠상(潛商-暗商)의 문자 통역을 겸한 서사(書士)노릇을 했던 것이다. 그들이 처음과는 달리 뱃이 생기는 등 뱃길에 적응할 수 없어서 총사령 우공으로 부터 미리 받은 몸값을 다 때우기 전에 우공의 독선과 비리를 알게 되면서 그 선단을 떠날 뜻이 모락모락 생겨났던 것이다. 이런 박동민에게 잠상수도 뜻을 함께 하던 중 두번째 탈출 시도에서 무목도의 구제를 받아 수원과 수월로 변신한 바였다.

요컨대 수원은 어느 곳에서나 일단 적응하지 못하는 시련을 받아야 하였다. 그 무역선단의 뱃길에서도 이곳의 수월에서도 그는 병을 앓아야 했던 것이다. 좌선에서 단전(丹田)의 열이 머리로 은통 올라와 열꽃이 핀 것도 그에게는 비껴갈 수 없는 절치나 다름 없었다. 바로 그런 열꽃이 누가 깨닫게 해주지 않던 것처럼 없어져서 수원의 얼굴은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인담이 "바람이 씻어 준 것이겠지"라고 한 말은 허드렛말이 아니었다.

이제 수원은 그의 첫 발심(發心)이 어찌던 저 난바다 위의 하늘에 닿아있는 무심(無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의 친구 수월이 옛날 얘기로 수원의 깨끗해진 얼굴을 격려했다.

노나라 자경은 명품을 만들때 칭찬이나 비난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몸뚱어리 조차 잊은채 일념에 파묻혀 일체의 일상사를 다 여의었다.

"자네는 이제 자경(梓慶)의 금(鑄)을 만들 만한 경지일세"  
"무슨 말인가. 나에게 지나친 칭찬은 독이 될 것이야"  
"독이야 임금이 보내는 사약에 들어있지... 이 도량에서는 독도 약이 되고 만다네"  
"무슨 뜻인가?"  
"내가 옛날 중국 노(魯)나라 자경에 대하여 얘기하겠네. 노나라는 자네도 한때 전의 뱃길로 달아본 적이 있지? 바로 이 바다 건너 조선과 가장 가까운 곳이 옛 노나라였지. 그래서 조선의 충정도 당진(唐津)에서 노나라 새벽 정답 우는 소리

를 바다 건너로 듣고 아낙이 새벽 물 길러 나가기도 했는지 않나..."  
"가깝다면 가까운 곳이지..."  
"그 노나라에 악기를 으뜸으로 만드는 사람 자경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 납치해 가려고까지 했다는 전설이 있지... 하여간 노나라 왕이 그를 불러 술을 대접하며 명금(名琴)을 만드는 재주를 물었다"  
"라고 말씀을 이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자경이 몽롱하게 술에 취한채 대답했다.  
"소인은 악기를 만들 때 반드시 목욕을 하옵니다. 마음을 지극히 평안하게 합니다. 목욕 뒤 3일이 되면 악기를 만들어 청찬을 듣겠다는 생각 따위가 다 없어지

었다. 5일이 지나면 설사 잘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난 받는데 두려워하는 생각 따위에 집착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7일이 지나면 소인 자신에게 손발이나 몸뚱어리가 있다는 것도 아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으음!"  
"자경은 낮은 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때가 되면 금을 만드는 일념(一念)에만 파묻히게 되므로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일체의 일상사(日常事)를 다 여의고 마옵니다"  
"으음! 으음!"  
"그런 뒤에야 비로소 산으로 들어가 나무의 성질과 모양을 관찰하옵니다"  
"으음!"  
"그리하여 좋은 재료가 찾아지면 그것이 금으로 완성된 것을 머리 속에서 상상하옵니다"  
"으음!"  
"그런 다음에야 부라부라 내려와서 만들기 시작하옵니다. 이는 저의 뜻을 하늘의 뜻과 같게 하고자 함이옵니다"

## "어찌 하늘 뿐이겠는가... 저 파도위 갈매기들 하루 내내 부지런히 사는 것 보시게나... 내 스승은 인담 우녀스님과 함께 저 갈매기들인지 몰라"

음니다. 5일이 지나면 설사 잘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난 받는데 두려워하는 생각 따위에 집착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7일이 지나면 소인 자신에게 손발이나 몸뚱어리가 있다는 것도 아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경은 낮은 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때가 되면 금을 만드는 일념(一念)에만 파묻히게 되므로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일체의 일상사(日常事)를 다 여의고 마옵니다"  
"으음! 으음!"  
"그런 뒤에야 비로소 산으로 들어가 나무의 성질과 모양을 관찰하옵니다"  
"으음!"  
"그리하여 좋은 재료가 찾아지면 그것이 금으로 완성된 것을 머리 속에서 상상하옵니다"  
"으음!"  
"그런 다음에야 부라부라 내려와서 만들기 시작하옵니다. 이는 저의 뜻을 하늘의 뜻과 같게 하고자 함이옵니다"

여기까지 말한 수원은 수원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기쁨이 채워진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수원이 한 마디 화답(和答)의 말을 꺼냈다.  
"하για 명공(名工) 자경의 경우만이 아니겠지... 우리 농부성이 농사꾼도 하루 일을 마치고 호미나 쟁이를 깨끗이 씻어서 잘 씻겨두며 '자네들이 일을 다 했네 그려. 수고가 많았네'라는 인사를 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연장이 하나임을 뜻하는 것이겠지... 그것은 소와 사람, 닭과 사람 심지어 달걀과 사람 사이도... 뒷동산의 소나무와 사람 사이에도 어떤 틀이

없는 것이겠지... 함께 높은 곳에 있음이 마치 구름 걸린 푸른 하늘에 날아가는 학과 같지 않을 것인가"  
"허허 정녕!"  
"어찌 하늘 뿐이겠는가... 저 파도 위 갈매기들 하루내내 부지런히 사는 것 보시게나... 내 스승은 인담 우녀스님과 함께 저 갈매기들인지 몰라"

"정녕! 수원 자네가 새롭네 그려"  
"아마도 수원 수월들이 이번 일을 치르고 나서야 무목도에 삼신이 다 정착된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전이 방선(放線)의 한 때에 저쪽의 배 메어둔 선착장으로 가서 잠깐 삼아 배의 밧줄을 끌어서 저만큼 나가보았다가 갑작스러운 파도더미에 떠밀리며 삼시간에 섬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로 떠내려 간 사건이 생겼다.  
무전이 더러 겁이 났으나 그렇다고 큰 소리를 질러대지도 않았다. 아니 큰 소리를 질러보아야 파도소리에 물릴 따름이었다.

합두가 큰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 방안에서는 지붕을 이을 때 필요한 굵은 역새 새끼를 꼬고 있었다. 밖에서 할 일이지만 오늘따라 한결한 만화와 파현에게 고맙기운이 있어서 방안에서 일하게 되었다.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스님"  
"남각이 말하였다.  
"또 어떤 손님이 오는 것이요? 이번에는"  
"손님인지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합두는 얼굴뿐 아니라 목소리도 아름다웠다. 언젠가 만화가 합두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로 소리 공양을 드리면 어떤 심술 굵은 8부신중도 납작 엎드려 기뻐하였다라고 슬며시 눈을 던진 적이 있었다.  
인담과 만화 남자들이 나와서 바다쪽을 바라보았다. 파도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파도도 아까보다 더 힘이 더해지고 있었다. 배가 저쪽 먼 바다쪽에서 보이다 안보이다 할 정도였다.  
"그렇다면 무전스님이 아닌가? 무전이

안보이니 말이요"라고 만화가 긴장하는 것이었다.  
"무전스님임에 틀림없는 것 같소"라고 인담도 거들었다. 그들은 대변에 선착장으로 가서 다른 배를 띄워 파도의 물마루와 물 밑바닥을 요동치는 배위에 타고 있었다.  
만화의 솜씨로 그들의 배가 표류하고 있는 배쪽으로 다가갔다. 과연 무전이 그 배의 빈 돛대에 제 몸을 동여매고 기대고 있었다. 파도더미를 능란하게 막지 못한 채 물결에 삼켰으므로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만화의 짐작대로였다. 만화가 먼저 두 배 사이를 밧줄로 연결하고 나서 무전이 탄 배에 필사적으로 건너갔다. 만화도 물 속에 빠졌다가 뱃전을 잡고 올라가야 하였다.  
삼 기슭으로 배를 대기에 쉬웠다. 파도에 떠밀리면 되기 때문이었다.  
여러 사람이 장대와 노 따위를 들어 배를 바위와 바위 사이의 모래톱에 끌어올렸다. 그런 다음 무전을 끌어내려서 바로

간방에 합두가 바다 위에 배 한척이 떠다니는 꿈을 꾸었다. 그녀가 우녀에게 말하였다.  
"꿈을 꾸는 일도 물리쳐야 제대로 공부 가 되겠지요? 스님"  
"꿈도 마물(魔物)이기는 하지만... 나도 간밤 꿈을 꾸었다네... 지극히 깊은 사람에게서 꿈이 없다(至人無夢)는 것이라면 나도 어렵없는 형편이로... 간밤 꿈에 저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다니고 있었지요"  
"어머니 제 꿈과 똑 같습니다. 스님"  
"꿈 하나가 두 사람에게 들어왔나 보군... 한 방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그럴 수도 있었지요"  
그들이 오후의 작무(作務)에 나서기 위해서 남새밭 일을 하려고 연장을 들고 나오다가 문득 바다 쪽을 바라보게 되었다. 거기에 꿈 그대로 배가 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배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요..."  
"하για 사람이 왔으니 저렇게 바다 위를 돌아다니는 것이겠지요?"  
"그래야겠지요"



수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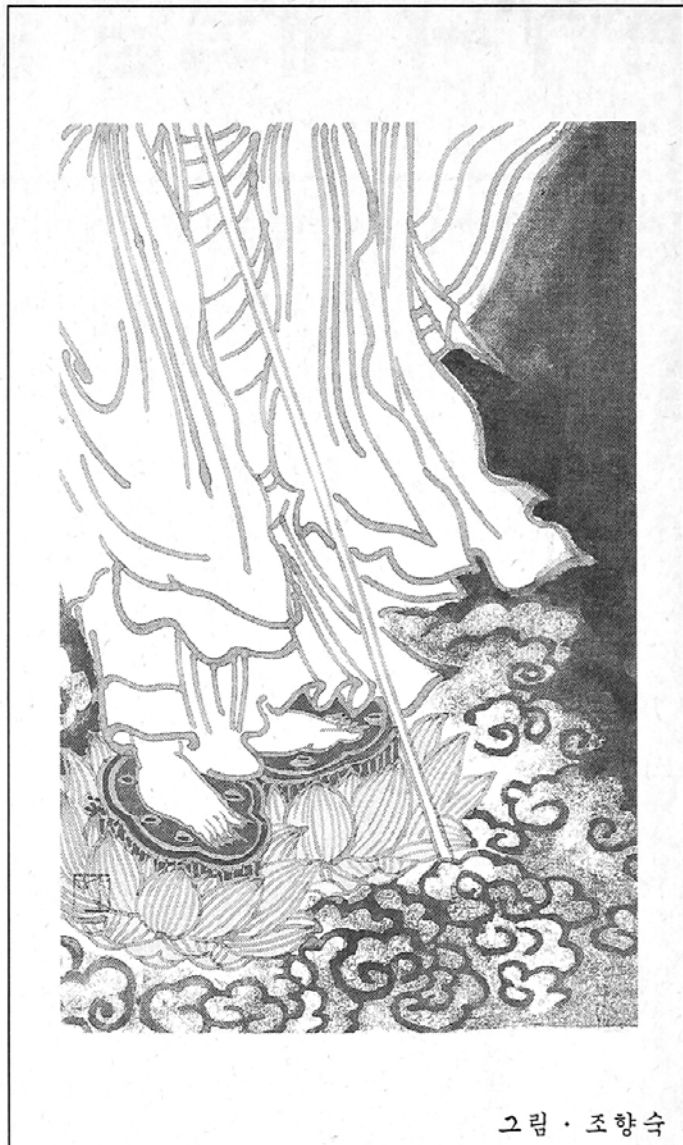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가슴과 배를 둘러 호흡을 시켰다. 처음에는 먹은 물이 한두차례 나왔다. 호흡을 계속 시키자 이윽고 그 호흡에 이어 스스로 "후우!"하고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만화가 그런 무전의 뱃의 좌우를 사정없이 때렸다. 코피가 흘러 나왔다. 그렇게 얻어맞고 나서야 무전이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저승에는 아무나 가는 줄 아나?"하고 만화가 꾸짖었다.  
덜덜덜덜 눈을 뜬 무전이 그제서야 사람들의 얼굴을 올려다 보는 것이었다. 그는 배 위에서 실신(失神)하고 있는 동안의 가사(假死)상태에서 아주 행복한 사연을 경험한 것이었다.  
고려말기의 백운(白雲)선사를 그 비몽사몽의 실신상태에서 만난 것이 바로 그 사연이었다.  
백운은 태고(太古)보다 11세나 위었고 나옹(懶翁)보다는 30세나 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하심(下心)은 철

저해서 그보다 나이 어린 두 선사를 마치 여 조사처럼 떠받들어 스스로를 겸손한 처지로 지켰던 것이다.  
"어찌 내가 태고스님과 벗하리요... 어찌 내가 나옹스님을 섬기지 않으리요. 나는 두 분을 머리에 이고 있어야 하리!"  
일찍이 고부군에서 태어나 출가한 뒤 원(元)나라에 들어가 임제(臨濟)의 맥을 잇고 있는 석옥(石屋)에게 밤을 배우고 인도승 지공(指空)에게도 법을 익히고 돌아와 공민왕 2년 정월에 크게 깨친 선사가 바로 백운스님이였다.  
뒷날 고려말의 이색(李穡)이 서문을 쓴 백운어록이 남아 있고 또한 그가 초록(抄錄)한 「불조지심체요절(佛祖直心體要節)」 2권이 있는데 이것의 홍역사 주초본(講義本)이 바로 세계 최고(最古)의 주자본인 것이다.  
어쨌거나 무전은 그가 만난 백운스님에 대한 사연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음 깊이 실어두었을 뿐이다.

### 계간 '상상' 주관 제1회 상상문학상 수상작

"붓다 시대를 다룬 세계 최초의 본격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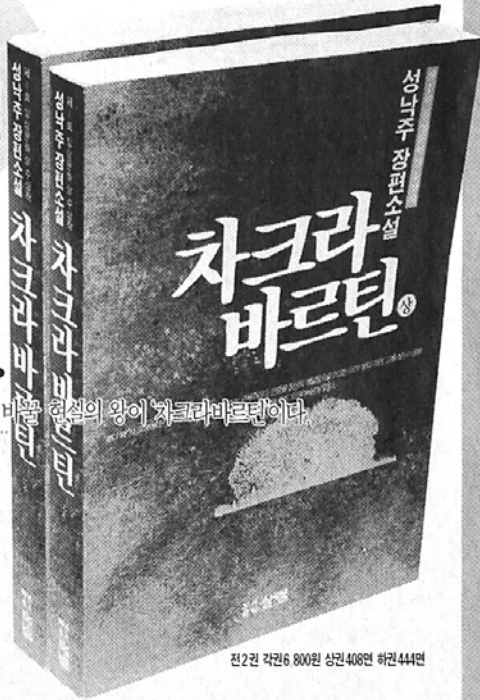
# 차크라바르틴

'붓다'와 '차크라바르틴'은 다 같이 민중들이 기다리는 구세주이다. 민중을 정신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가 '붓다'라면, 고통스런 이 땅을 낙원으로 바꿀 '현실의 왕'이 '차크라바르틴'이다.

차크라바르틴은 불교라는 종교가 막 태동하고 발생하는 시간적·공간적 지점으로 내려가 그 본질을 탐색하고 있다. 석가족의 성장 고타마 시타르타와 석가족을 멸망시켜 전축을 통일하려는 비유리 왕의 갈등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면서, 붓다(覺者)와 차크라바르틴(轉輪聖王)이라는 형이상학에 도전하는 진지한 주제와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오늘날 신화와 설화에 대한 우리 문화계의 새로운 관심은 세기말의 삶이 파란과·분분화 되었다는 반작용인 동시에 삶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문화적 재발견을 반증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신화와 설화가 작품 전체에 녹아들어 있는 '차크라바르틴'은 분명 눈여겨 보아야 할 뛰어난 소설임에 분명하다.

저자 5년의 세월 동안 나는 이 작품을 서른 번이나 새로 썼다. 그리고서 서적에도 수록되기 싫을 것이다. 이 소설에는 저자 내 생의 골과 혼혈이 녹아들었다.  
차크라바르틴은 내 몸 이야기의 속세에 빠진 소설이다. 이토록 무공무민인 삶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소설을 근대적 본 적이 없다. 이야기라면 작대기도 없애 버리는 버릇의 나에게 이 소설이야말로 가장 반가운 신화였다. **장르(장소)소설가**  
차크라바르틴은 근대 보기 드문 대역이다. 우선 우리 정신의 근원인 동양정신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강한 이야기 사서의 힘은 독자를 정신없이 빠져들게 한다. **이념(사상)소설가**

성낙주 장편소설



전 2권 각권 6,800원 상권 4,080원 하권 4,440원

100년 전 한국의 모든 것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시벨라 비드 비스 저음 이인희 옮김  
최초 33년 이후 80·60년 간 12,000원  
그전부터 읽고 싶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번역이 나와 읽게 됐다. 소설처럼 읽히는 재미있고 우리 역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풀어주는 작가의 관망적이며 일관된 논리를 감동시킬 수 있다. **역사(사상)소설가**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한 남기로운 분석도 놀라운 것이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정세와 역사에 대한 생생한 고찰, 우월의 귀와 귀신들의 계보 등 민중생활에 관한 생생하고 세심한 관찰이다. **장르(장소)소설가**  
물과 100년 전의 시간 풍물 지평 생활면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무척할 수 있을까 번역을 하는 초역 동안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은 나의 무척을 통쾌하게 깨우쳐 주었다.  
**이념(사상)소설가**

신이현 장편소설  
숨어있기 좋은 방  
100년 전의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주인공은 주인공의 숨어있는 방을 찾아다니는 주인공이다.

이문열 사색집  
사색  
평생을 걸쳐 단 한 번만 쓴 문필도 같은 책  
값 5,000원

임철우 장편소설  
그섬에 가고 싶다  
장편의 웃음과 투쟁의 눈물 공과 인과에 관한 전설에 걸맞은 아름다운 이야기  
값 5,000원

임지우 장편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100년 독자로부터는 공감을 신화적지로부터는 역사성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은 문체학 박사  
값 5,500원

기형도 유고집  
짧은 여행의 기록  
짧게 살았던 사인의 일기 편지, 소설, 기행문 등 다양한 영혼의 불꽃나무  
값 5,000원

유서도 장편소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극소수의 독자들이 읽었지만 그 독자로부터는 감동을 받은 보석같은 소설  
값 5,000원

도서출판 **살림**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85-9  
인왕빌딩 304 305호  
전화 379 4925 4926 영업부  
394 3451 3452 편집부  
팩스 379 4724

살의 산비, 니이체적 질문으로 가득 찬 소설!  
주인공 윤이균. 이 귀여운 채취의 내면에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갖가지 거짓과 위선을 통렬한 칼에 도발한 니이체적 전설이 존재한다.  
숨어있기 좋은 방은 이웃사촌처럼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50년대 소설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조소앙**  
생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여인의 욕망이 담긴 소설! **동아일보**  
이 소설은 우리를 문명화에서도 두려운 세계로 유혹하고 있다. 나는 우리 소설에서 보기 드문 문체학적 소설을 읽게 되었다는 기쁨을 느꼈다. **김현(문학평론가)**  
값 5,000원

도서출판 **살림**